

4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히브리서 · 야고보서 · 에스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4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히브리서 · 야고보서 · 에스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4

2010
April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 히브리서 9장	5 히브리서 10장	6 히브리서 11장	7 히브리서 12장
11 야고보서 3장	12 야고보서 4장	13 야고보서 5장	14 에스겔 17장
18 에스겔 21장	19 에스겔 22장	20 에스겔 23장	21 에스겔 24장
25 에스겔 28장	26 에스겔 29장	27 에스겔 30장	28 에스겔 31장

May

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히브리서 6장

2 히브리서 7장

3 히브리서 8장

3 히브리서 13장

9 아고보서 1장

10 아고보서 2장

15 에스겔 18장

16 에스겔 19장

17 에스겔 20장

22 에스겔 25장

23 에스겔 26장

24 에스겔 27장

29 에스겔 32장

30 에스겔 33장

교회 주요일정

4월 2일

성금요일(제3차 성찬식)

4월 4일

부활주일

4월 25일

장애인주일

제2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일정

- 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⑥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⑦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 낚골시설 ·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이며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만 알뿐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는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요 20:11)
마리아의 눈물이 부활의 첫 아침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전 15:17).

2010년 4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할 것’을 권면하며,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보적 신앙을 버리는 길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회개할 것은 ‘죽은 행실’(1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며,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후회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 그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히 6:1)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②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 찬송가 395장

2 금요일

구약의 모세 때에 율법을 따라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아론의 반차 외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는 자이지만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우며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습니다(1~3절). 그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린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 유래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사실상 아론의 반차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는 결국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제가 온전하지 못하였으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웠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11~28절).

아론은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16절)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십니다(21절).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바쳐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만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히 7:28)

기도제목 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성금요일에 이루어지는 제3차 성찬식을 통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으로 변경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나 제사장의 직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나 그림자일 뿐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시적 성소가 아닌 하늘의 참 성소에 계십니다(1~6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7~13절). 옛 언약인 율법은 결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속죄와 영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매개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옛 언약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새 언약은 이 땅의 모든 인종과 나라를 대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히 8:8)

기도제목 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새 언약의 큰 영광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폐기된 옛 언약 의식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으나 새 언약의 제사는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드러졌기 때문에 반복됨이 없습니다(1~14절). 특히 제사에는 꼭 피 뿌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법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인간의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으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어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하심으로 제사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28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의 생각과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우리는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이르게 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기도제목 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고난과 인내의 목적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련을 확신과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통과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33~34절). 초대 교회 성도들은 비방과 환난으로 써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방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환난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한 고난은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 핍박받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두 세계의 길에는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9)

기도제목 ① 고난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에녹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창 5:24).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삶을 통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복을 받았습니다(5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6절).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벧전 1:3).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으로 나타남을 믿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 찬송가 303장

구약의 많은 증인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것을 목표로하면서 행하는 삶을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참가하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2절).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유일한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근원이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는 누구를 탓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기쁨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어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과 사랑의 수고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기도제목 ① 주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 고난을 기뻐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약시대의 희생 제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 생명의 대속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구원을 얻는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의식들은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11~12절).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불태워졌던 희생 제물은 죄악된 인간의 죄를 담당한 채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희생 제물이 드러지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통 또한 우리 육체가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롬 5:9). 십자가 상에서 그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죄 사함도 없게 됩니다(히 9:22).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예정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구속 사역의 예표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속 역사 안에서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2)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야고보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18절).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요 1:14).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요 16:1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보혈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된 것입니다(고전 15:20). 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가리킵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이 거듭남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됩니다. 거듭남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요 1:13).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금요찬양집회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푸대접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신 10:17). 이 명령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즉 사람의 형편에 따라 차별하여 대하면서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긍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13절). 이러한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17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약 2:9)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선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먼저 난 자’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은 누구나 말에 대해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지만, 말의 실수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와 능력이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을 다스릴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8절). 많은 사람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샘의 한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낸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11절).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경고하듯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14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입술은 오직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십자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약 3:14)

기도제목 ① 우리의 입술이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6절). 사람들에게는 늘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정욕에 있습니다(1절).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세상의 욕심을 말합니다. 서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까닭에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2절).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8절).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소유들을 사랑하며 남에게 자랑하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며, 동시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기며 이웃을 판단하느냐”(12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16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에 오셔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현실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8절). 그것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7절).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생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6절).

성경은 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11절). 그리고 욕의 신앙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10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13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를 사하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

기도제목 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단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스겔 17장 · 찬송가 597장

패망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말기 상황을 두 독수리 비유로 묘사하는 전 반부(1~10절)와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음을 정죄하는 중반부(11~21절), 그리고 전 반부와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전하는 후반부(22~2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여호야긴 대신에 유다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처음에 바벨론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후 에스겔의 충고를 무시하고 친애국 정책으로 애굽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15절).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애굽을 의지하여 독립을 모색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바벨론의 명에는 얼마 못가서 꺾이고 말 것 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렘 28:1~12). 또한 그들은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유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매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겔 17:14)

기도제목 ① 매순간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23절). 악인일지라도 그가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회개를 통해 사는 것이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공의의 법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시행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재판관이 공의의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법을 무시하고 사랑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 즉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겔 18:22)

기도제목 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12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척박한 땅에서 옮겨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은혜로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이 계속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그 굵은 가지는 죄악으로 인해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마치 뜨거운 바람이 지나고 길의 초목이 시들고 말라죽는 것처럼 비참하고 처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위에 작은 싹, 즉 다윗 가문을 새롭게 돌아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탄생시켜 영원토록 ‘권세잡는 자의 홀’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육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위에 세워진 영적인 이스라엘은 의로운 가지인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금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과 영화는 잠시뿐이며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피의 어머니는 물 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겔 19:10)

-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백성됨의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43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 새 언약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가증했던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헛된 우상을 섬긴 사실로 인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베어내다’ 혹은 ‘슬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악을 슬퍼하면서 마치 베어내듯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는 회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눈물의 회개가 있는 곳에 주님과 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 18:32).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회개를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회개해야 할 때요 회개할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회개하는 성령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겔 20:43)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27절). 주님께서 빼신 심판의 칼은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즉 시드기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에스겔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반역으로서, 스스로 주님의 심판의 칼을 불러들인 행위였습니다. 주님을 대적으로 삼은 악인의 종말을 보십시오. 그는 왕위에서 끌려 내려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왕하 25:6~7). 한때 높은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악인은 결국 주님 앞에서 이처럼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유다의 왕권은 ‘엎드러지고 엎드러지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영적인 메시아의 왕권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의로운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엎드러진 유다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차원의 회복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차원의 메시아 왕국이 건설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심판과 멸망을 외치는 에스겔의 메시지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주는 회복과 치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할 때에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님의 나라를 의지할 때에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겔 21:27)

기도제목 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30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무너진 곳을 막고 무너져가는 성읍을 다시 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이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의로운 인물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읍에서는 의로운 중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돔 성이 멸망한 것도 그 성읍에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듯이(창 18:23,32), 예루살렘의 부패도 극에 달했고 의인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감동적인 중보의 기도는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출 32:11~13, 31~32).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32). 결국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골 2:14).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이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겔 22:30)

기도제목 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변하게 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35절). 주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네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등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기는 했지만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등 뒤로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수단으로만 몸부림치며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유다 왕국이 지상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한 징조로 보여 주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유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 왕국뿐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천여 년 전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겔 23:35)

기도제목 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증보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연합하게 하소서. ② 출현복지안 및 현재 추진(양로원 · 남굴시설 · 함양출현농원)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엮드리지게 할지라”(21절). 이는 에스겔이 소중한 아내를 하루 아침에 잃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과 기쁨과 아낌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소망을 두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함락될 때 주님의 성소는 파괴되고 예루살렘 백성은 비참하게 죽어 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멸망할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이자 소망인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았습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소망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 1:21).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겔 24:14)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와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열방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예언으로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서는 그 누구라도 범죄하면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곧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구원 역사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한편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주님의 심판도 선포되었습니다. 이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였을 뿐 아니라 주님의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뻐함으로 실상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경멸한 탓입니다(2~3절).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었던 열방을 주님께서서는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4절). 주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교만하게 비웃던 열방을 주님께서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비웃고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 역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겔 25:17)

기도제목 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두로가 주님의 진노를 당해 멸망하게 된 원인과 심판의 결과, 폐허가 될 두로의 참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죄악은 유다의 멸망을 목격하고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고 오히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차지하게 된 상업적 이익만을 헤아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2절).

한때 유다와 동맹국이었던 두로의 이러한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3절). 두로는 매우 강성하여 그 식민지가 지중해 해안과 섬들에 널리 퍼져 있었으나 주님의 심판의 예언과 같이 B.C. 585년부터 572년까지 13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으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B.C. 333년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바다에 제방을 쌓아 성을 함락시킴으로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매우 강성하였던 두로의 변영은 영원한 것일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스스로 피조물일 뿐임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겔 26:21)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의 은총을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채움 받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금요찬양집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줄 모르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는 먼저 두로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로를 배에 묘사하여 그 아름답고 장엄한 자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배에 묘사한 것은 두로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는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값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배가 되었습니다(4~11절). 이런 사실 때문에 두로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온전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요하고 아름다웠던 두로는 짐을 너무 많이 실은 배가 침몰하듯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계속 될 것만 같은 부귀와 영화가 어느 한 순간 물거품처럼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여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여”(26~27절).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한 인간의 부귀 영화는 헛것이며 주님을 모르고 교만한 자는 결국 주님의 버림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겔 27:32)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두로가 멸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자신들의 번영으로 인해 주님 앞에서 교만히 행한 탓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왕은 스스로 주님처럼 되려 하였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제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2절). 이처럼 두로의 왕은 유리한 지리적 위치,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하여 주님께서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을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겔 28:7~9). 이러한 주님의 심판은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영화의 헛점을 밝히 드러내 줍니다. 두로를 심판하신 주님께서서는 장차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같이 부요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겔 28:5)

기도제목 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감사로 가득한 제2차 학습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애굽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주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는 애굽 왕 바로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주관자로 군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애굽과 온 세상이 자신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1~16절).

심판의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의 미약한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애굽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애굽에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징벌의 때가 지나면 비록 보잘 것 없는 미약한 나라가 되겠지만, 그 백성과 땅은 분명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십 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흠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13~14절).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이 돌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21절).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십 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흠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겔 29:13)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스겔은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주님의 권세 앞에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와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 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3~5절). 그리고 아직도 주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애굽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으로부터 헛된 구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사 애굽을 포함한 열방을 심판하게 하셨으므로, 느부갓네살에게 반항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어리석은 짓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 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25절). 우리는 개인의 생사회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느 탁월한 절대군주나 우주의 자연 법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우주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주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겔 30:8)

기도제목 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안하며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근동 일대의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부강했던 앗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실을 들어 애굽의 멸망 역시 필연적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같은 사실을 예언할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은 주님이 각 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시며 온 세상을 일관성 있게 자신의 목적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운명과 이방의 멸망을 그저 무의미하게 바라보면서 여호와와 영광은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모두 한 분이신 주님의 주관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은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도구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애굽은 강력한 앗수르가 멸망했듯이 주님의 때에 느부갓네살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비록 강력하고 그 위세가 등등하였던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10~14절). 멸망을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 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겔 31:11)

기도제목 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애굽 왕 바로에 대한 파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파멸은 주님께 반항하는 온 세상 나라에게 내려지는 보편적인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언 날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에스겔은 유다의 포로된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은 주님 역사의 종말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도 아닙니다. 또한 이방 신들이 주님께 대해 영원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패망을 본문에서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나라가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기까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영화로웠던 애굽과 바로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신들은 그들을 멸망에서 구하지 못하고 많은 백성은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과 바로와 같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주권이나 문화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모르고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불쌍한 불신앙의 세상을 궁핍히 여겨 이들에게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겔 32:15)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 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미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예언으로서,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에스겔이 공동체의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를 책임지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하셨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전 국가 공동체의 생사가 걸려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악인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님께서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전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누가 이 사회와 교회를 깨울 파수꾼입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겔 33:18~19).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이다”(겔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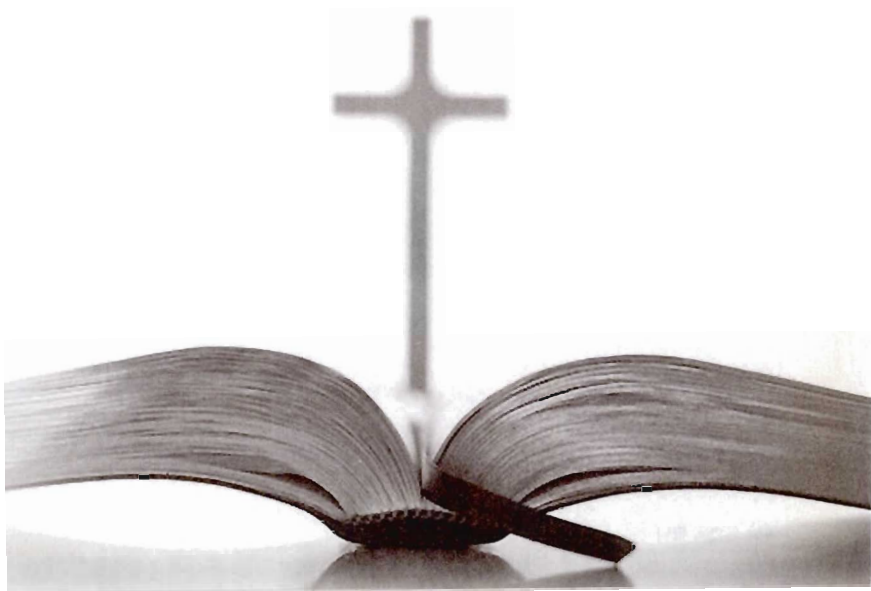
가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에 감전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4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의 승리, 부활



십자가의 승리,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거대한 죄의 돌이 굴러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빈 무덤을 보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망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승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4월 2일

마가복음 16:3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Who Will Roll Away The Stone For Us?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막는 돌을 치우신다

4월 9일

요한복음 20:11~18

부활절 아침의 눈물

Tears On Easter Morning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다

4월 16일

고린도전서 15:13,20,57

죽음, 생명, 영원

Death & Life & Eternity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4월 23일

요한일서 1:7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믿음의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의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 초점 |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막는 돌을 치우신다

| 찬송 |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 본문 | 마가복음 16: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
요 하더니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막 16:1). 그들은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시체에 가까이 가려면 누군가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주어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줄 것인지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자신들의 구원이 아닌 돌 때문에 걱정하였습니다.

막 16:3

※ 부활절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기쁨과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눅 18:31~33).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돌은 절망을 상징한다

돌은 죽음에 대한 절망을 상징합니다.

※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무덤의 돌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덤의 돌을 멀리 옮겨 놓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앞서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깁니다.

고전 15:20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 ☐ ☐가 되셨도다

고전 15:55~57 _____

행 2:22~24 _____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돌은 대적자들의 노력을 상징한다

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마 27:63~66

※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와 유대교 외에도 사탄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종개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요 8:44~45

골 2:14~15 /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
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돌은 분리를 상징한다

돌은 구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 무덤을 막고 있는 '돌'과 우리의 '죄'를 비교하여 보십시오.

사 59:1~2 /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을 허물어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눅 19:10 _____

롬 8:38~39 _____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막 16:4 _____

막 16:6 _____

예수님은 악하고 곤하며 애통하는 모든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여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의 돌은 옮겨졌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죄의 돌을 치우실 것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2.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부활절 아침의 눈물

| 초점 |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다

| 찬송 |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 본문 | 요한복음 20:11~18

⁽¹¹⁾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¹²⁾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¹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 다 하라 하시니 ⁽¹⁸⁾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고전 15:17~20

살전 4:16~17

가장 행복한 부활절 날에 사랑스런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 날,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그 눈물을 어떻게 멈추게 하셨을까요? 뼈아픈 슬픔에서 일어나 놀라운 사역을 담당하게 된 마리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마리아는 절망했다

빈 무덤은 마리아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요 20:11~13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픈 생각은 그녀를 어둠으로 둘러쌌고 분노가 슬픔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예수님을 따랐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막 14:8~9, 27~28).

※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리아가 슬퍼하고 절망한 이유와 현재 내가 슬퍼하는 이유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능력, 현존을 의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진실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은 진실했습니다.

막 16:9 /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 □□□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리아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요 20:14)에도 알아채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요 20:15 /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_____
_____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시각이 바뀔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삶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마리아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요 20:16~18

예수님은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귀는 그녀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그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곧 그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죽은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 10:28~29

※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오직 빈 무덤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 11:25~26

시 119:105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평화와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승리의 눈물로 바꾸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 믿음의 기도 |

1.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 기쁨이 되게 하소서.
2. 십자가를 붙들며 매순간 복음을 위한 소망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에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소서.

죽음, 생명, 영원

| 초점 |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찬송 |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 본문 | 고린도전서 15:13,20,57

⁽¹³⁾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²⁰⁾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⁵⁷⁾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 생명, 영원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런 문제들에 대해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글들을 통해 그들에게 답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특히 부활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그들의 혼란을 말끔히 없애고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가?”에 대한 대답을 써 보십시오.

요 2:18~19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확실한 천국의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전 15:13 _____

※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고전 15:14~19 _____

부활을 부정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은 사람은 사라진 뿐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 로마서 1:16~17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고전 15:20

더 이상 '만약'은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전 15:22~26

고전 15:49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십니다.

고전 15:57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롬 8:1~2 _____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그리고 사망과 무덤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전 15:58 _____

요 3:16 _____

※ 나의 삶에 부활이 주는 승리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죽음과 생명, 영원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약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온갖 혼란스런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얻는다면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 3:36 /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있고 아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딤후 3:7 _____

| 믿음의 기도 |

1.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소서.
2.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부활의 은총으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는 누구인가?

| 초점 |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 찬송 |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본문 | 요한일서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나는 누구인가?' 각각 자신을 소개해 보십시오.

역사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범죄학자, 설교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기쁜 소식은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 1:27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의 작은 입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입니다.

※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들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창 1:31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훼손되었습니다.

- ※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선악과 사건'에 대해 성경을 살펴보고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창 2~3장).

롬 5:12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입니다. 죄는 어디에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는 날마다 살인, 강도, 전쟁 등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탐욕과 질투, 자만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규칙, 법규, 교육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억압과 응징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노력마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 ※ 로마서 3:10~23 말씀을 자세히 읽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벧전 2:1~2

십자가의 은혜는 훼손된 형상을 회복시킨다

십자가의 은혜는 훼손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롬 5:18~19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를 죄악의 세계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거룩한 천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은혜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엡 1:7

롬 1:4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히 7:25

고전 6:19~20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났으며,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부어주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요일 1:3~4 /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일 5:2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이 땅의 가치에서 찾는다면 혼란스럽고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죽음, 생명, 영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13, 20, 57)

죽음, 생명, 영원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요 2:18).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바리새인들은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

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몇 가지 복음의 기초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런 문제들에 대해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들에게 답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특히 부활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그들의 혼란을 말끔히 없애고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단지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확실한 천국의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자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의 가장 두려운 점은, 죽은 사람은 사라질 뿐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전 15:13). 이것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모든 제자의 위대한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글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전 15:14~19).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부활을 부정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의존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더 이상 ‘만약’은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은 신뢰할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에게 대한 기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이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

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2~26). 구원은 확실합니다. 로마서 6:23은 말씀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9).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사망과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8). 영생은 모든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생명 그리고 영생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약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온갖 혼란스런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4월

Copyright©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